



진안군은 17일 베트남 끈뚝성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진안군-끈뚝성, 양해각서 체결

베트남 시장진출 등 적극적 교류·협력 기대

진안군은 17일 해외도시 교류 확대를 위해 베트남 끈뚝성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항로 군수를 비롯한 경제, 관광, 문화 분야 진안군 관계자와 응우옌 반화 성장을 비롯한 베트남 끈뚝성 관계자 7명이 참석했다. 두 도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관

광, 농업, 제약, 의료, 도시개발 및 교육 분야의 발전 등 다양한 경제 사회 분야에서 다각적인 협력 사업을 펼치기로 논의했다. 군은 이번 MOU를 계기로 홍삼을 비롯한 진안 농산물의 베트남 시장진출을 모색할 계획이다. 끈뚝성은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수력, 광물 및 입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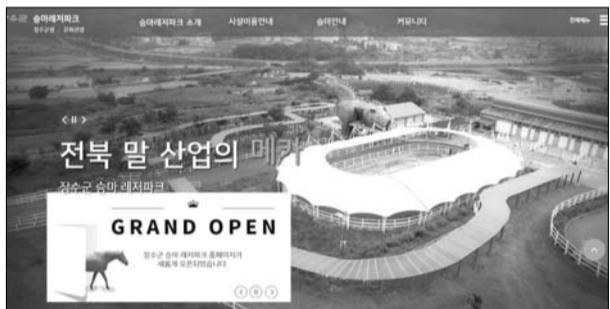
이 활성화되어 다양한 기업이 투자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의 높은 성장세로 매년 463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이다. 이항로 군수는 진안군이 대한민국 유일의 홍삼특구임을 강조하며 "양 지역이 MOU를 체결함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정책을 공유할 계획"이라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홈페이지 개설

승마체험장 등 문화, 휴양 공간

장수군은 장수승마장, 장수승마체험장, 승마레저체험촌으로 구성된 장수 승마레저파크의 홈페이지(<http://www.jangsu.go.kr/horse/index.sko>)를 최근 개설했다고 밝혔다. 장수 승마레저파크는 중부산악지대에 위치한 장수승마장과 아름다운 산악을 일망할 수 있는 병행대산록에 위치한 승마체험장과 승마레저체험촌을 갖추어 숙박, 휴양, 레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장수군은 승마레저파크의 홈페이지(<http://www.jangsu.go.kr/horse/index.sko>)를 개설했다.

승마는 전신운동으로 자세교정에 탁월하며 혼자서 잘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과의 교감이 중요하여 동물과 친밀감 상승으로 정서적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한 심폐기능의 강화와 팔, 다리, 어깨, 허리 등 근육발달에 도움을 주는 스포츠로 다이어트 효과에도 탁월하다. 장수승마장은 50,000여평 규모에 마사와 실내경기장, 실외마

장, 본관과 20두의 말을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다. 장수승마체험장은 장수를 노하리에 위치하며 관리사와 마방 20간, 실외마장, 희귀말전시장, 방문자쉼터, 위승코스, 트로이목마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22두 승용마로 승마체험을 진행한다. 원형마장 체험은 청소년 기준 13천원, 체험주로는 5천원이면 체험

/장수=고관호 기자

'꿈과 행복을 주는 교육과 복지' 실천 지침 발표

이영숙 장수군수 예비후보

'꿈과 행복을 주는 장수군'을 만들겠다는 군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소속으로 장수군수에 출마한 이영숙 예비후보가 장수군 5대 발전방향을 적극 설명하며 장수군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이영숙 예비후보는 지역현안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해 공약한 부자농촌 건설, 문화관광·생활체육 활성화에 이어 '꿈과 행복을 주는 교육과 복지 실현'을 목표로 하는 세 번째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가 제시한 꿈과 행복을 주는 교육과 복지 실천 지침은 노년 이 행복한 노인정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생활 지원,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지원, 시대에 맞는 여성지원 정책실현 등을 담았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희망을 심는 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영숙 예비후보는 "장애인종합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과 역할을 정립하고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에 대한 민간복지 전달체

제를 강화하여 공공의 선을 이룩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또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애양진흥재단의 지원 영역 확대, 청소년 문화예술 체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하여 여성문화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돌봄 복지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로당 공동급식 지원 확대, 목욕탕 증축으로 상시 운영, 학생 승마·수영·골프 무료교육, 교복비 지원, 해외 역사문화탐방 지원, 워킹맘과 농업인 여성 돌봄사업 확대 등을 약속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매아리



무주 태권도원, 유채꽃밭 '만개'

무주태권도원 내 유채꽃밭이 활짝 피었다. 태권도원 전통정원 맞은편에 위치한 유채꽃밭은 3,000여평(9,917여㎡)으로 지난주 개화를 시작해 이번주 만개했다. 지난주까지의 2018 봄 여행주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태권도원을 방문하면 태권도 상설시범공연과 태권도 체험프로그램, 국립태권도박물관 기획전시, 전당대 관람 등의 태권도 체험 및 힐링여행과 함께 만개한 유채꽃밭에서 사진촬영으로 추억을 남길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 실시

장수군은 17일 무진장소방서와 장수경찰서, 장수군 자율방재단 등 10개 기관·단체와 함께 송학골 마을에서 산사태 발생을 가정한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토론회와 현장 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송학골 마을에 산사태가 발생하여 주택이 붕괴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실제 상황을 가상해 먼저 토론회로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긴급대피 및 현장 출입통제 △초기대응 및 인명구조 △수습 및 복구 작업 순으로 진행됐다. 안전한 부군수 주재로 실시된 이날 토론회는 상황 발생에 따른 16개 협업부서의 위기대처 상황 매뉴얼을 심도 있게 검토한데 이어 토론회 종료 후에는 매뉴얼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했다. 또한 소방서에서 사상자 구호와 매몰자 구조, 군청에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재난현장에는 통합지원본부 구성과 수습과 복구 단계로 나눠 현장 훈련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군은 현장 훈련에 앞서 2일 안동환 부군수 주재로 훈련 참여기관·단체 관계자와 회의를 갖고 현장 훈련 시나리오를 점검하고 협업 기능별 대응 훈련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이날 훈련에 실제상황 연출을 위해 소방차량, 군부대,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보건소 등의 긴급구조 및 복구차량 30여대를 동원해 재난대비 훈련에 철저를 기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내년도 감자 보급종 생산 안전

무주군이 내년도 정부 보급종(감자) 생산에 안전을 기하고 있다. 감자(수미) 보급종 채종단지는 무풍면 일원 5농가/11ha(해발 800m 이상의 산간고랭지)로 187톤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17일 무주군에 따르면 우량 종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 사업비 1,200만원을 확보했다. 생육기별 공동방제를 위한 약제 지원에 나선 무주군은 10월까지 채종포 공동방제를 실시한다.

이후 무주군은 발아 후 묘묘가 15cm 정도 발육되었을 때 1회, 개화성기에 1회(연 2회) 국립종자원과 합동으로 포장검사를 실시해 이 품종 혼입여부와 바이러스, 기타 병해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포장 검사 후 수확된 감자(병해와 함께, 기계적 상해, 기형감자, 열해감자, 중심공동 및 감자 싹 등 규격에 합격한 물량은 전북도 시·군 농업협동과 연계해 신청 농가에 공급하게 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관내 초등학생 대상 생명존중 교육...7월 20일까지

생명존중 교육...7월 20일까지

진안군보건소(소장 성을경)는 지난 17일 5월부터 7월 20일까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 향상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초등학생들은 다른 연령에 비해 주변 환경에 취약하며,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모와의 관계, 집단 따돌림 등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아동들의 우울감에 영향을 준다. 이 시기는 우울감에 대한 감정을 제어하기 어려워 충동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에 진안군은 생명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여 소중함을 일깨우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코자 교육을 마련했다. 또 본인을 포함하여 위기에 처한 친구나 주변사람들의 신호를 발견하고 그에 대한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 사전에 예방하는데도 목적이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초등학생 10~14세는 641명(누적)에 달하며, 매년 적게는 20여명, 많게는 70여명에 이르는 아동들이 스스로 세상을 버렸으며, 10~14세 연령대 자살자 수는 지난 2000년 23명으로 집계된 이후 점차 늘어나 77명으로 정점에 달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내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 또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친구가 있다면 지나치지 않고 교육시간에 배운 방법을 통해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